

수능 D-50, 차분한 분위기 속 긴장감은 최고조

의대 증원·무전공 확대 등 변수 학부모, 절·교회 등서 응원기도 "최상위권 졸업생 유입 확실시" 이정선 교육감, 학교 찾아 응원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수능은 의대 정원 증원, 무전공(전공자유선택) 선발 확대 등 변수가 다양한 만큼 수험생들 사이에선 평소보다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올 수능이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이라 예상되는 만큼 학부모들은 절, 교회, 성당 등을 찾아 자녀의 고득점을 위해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25일 수능 50일을 남겨두고 정광고와 보문고를 찾아 수험생들을 응원했다.

이날 두 학교를 잇따라 방문한 이 교육감은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3학년 학생들과 만나 "학부모, 선생님, 친구, 교육청 모두 우리 고3 학생들을 응원하고 있다"며 "떨지 말고 그동안 해온 만큼만 하면 수능 대박이 날 것이다"고 파이팅을 외쳤다.

50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에 학생들은 평소보다 굳은 의지를 다지면서 차분함을 유지하고 있다.

수험생 박수영(18)양은 "이번 수능이 다른 때보다도 변수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어 조금은 불안한 마음도 생기지만, 이럴 때일수록 조금해하지 않고 페이스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25일 광주 정광고등학교에서 수능 D-50일을 앞둔 고3 수험생들을 격려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9월 모의고사 평가만큼만 성적이나 나온다면 희망하는 대학을 갈 수 있을 것 같다. 수능까지 지지 않고 집중해서 원하는 결과를 꼭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3 답답을 받고 있는 장동술 수완고 교사는 "의대 정원 증원으로 최상위권 졸업생들의 유입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어 현역 학생들이 상당히 불리한 상황으로 분석된다"며 "아이들도 이 사실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지 어느 때보다 경직되고 조금은 어두운 분위기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위기가 곧 기회인 만큼,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부모들은 인생의 큰 도전을 앞둔 자녀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응원 기도에 나섰다.

이날 오전 10시께 광주 서구 쌍촌동에 위치한 무각사에는 자녀의 수능 고득점을 기원하기 위한 학부모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정해진 예불 시간에 맞춰 법당을 찾거나, 개인이나 가족 단위로 와 기도하는 이들로 사찰은 문전성시를 이뤘다.

불상 앞에 무릎을 꿇어앉은 학부모들은 두 손을 모아 합장한 채 기도를 하거나, 스

님이 외는 법문을 함께 낭독하며 간절한 응원을 이어갔다.

일부 학부모들은 채 가지지 않은 더위에 방석 위로 굵은 땀방울을 떨어뜨리면서 등 자녀의 무탈한 수험생활을 응원하며 공을 들이는 모습이였다.

양현미(42)씨는 "책상 앞에 앉아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수험생 딸이 안쓰럽고 대견하다. 딸이 노력해 왔던 만큼 좋은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응원하고 기도하기 위해 무각사를 찾았다"면서 "남은 50일 동안 조금 더 힘을 내서 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를 바란다. 끝까지 뒤

에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동구 광산교회에는 꾸준히 손녀딸의 수능을 응원하기 위해 기도하는 김석호(79)씨가 이날도 어김없이 모습을 드러냈다.

김씨는 "거의 1년 가까이 1주일에 적어도 한 번, 많은 날은 세 번까지 교회를 찾아 기도해 왔다"며 "나야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평생 가족들을 위해 일만 하고 살아왔는데, 고3인 손녀딸 만큼은 꼭 하고 싶은 공부를 끝까지 했으면 한다"고 간절함을 드러냈다.

이어 "유복한 집이 아니다 보니 몇몇 친구들처럼 고액과외나 비싼 학원을 보내주지도 못했는데 공부에 욕심을 갖고 세상을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참 기특하다"면서 "미안한 마음과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늘 교회에서 하느님께 기도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광주지역 수능 지원자는 1만 6846명으로 전년도보다 757명 늘었다. 재학생은 572명 증가한 1만 1684명(69.4%)이었으며, 졸업생은 88명 증가한 4420명(26.2%), 검정고시생 등 기타 지원자는 97명 증가한 742명(4.4%)으로 집계됐다.

전남에서는 전년 대비 478명(3.6%) 늘어난 1만 3941명이 응시한다. 재학생은 458명 늘어난 1만 1192명(80.3%), 졸업생은 4명 늘어난 2355명(16.9%), 검정고시생 등은 16명 늘어난 394명(2.8%)이다.

김은지·윤준명 기자

5·18기념재단, 김충립 전 특전사 보안반장 초청 집담회

내달 2일 5·18기념문화센터서

5·18기념재단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특전사령부 보안반장이었던 김충립 목사를 초청해 집담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집담회는 다음달 2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열리며 이재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공동저자가 참여해 제5공화국 기획자 허화평 등에 관한 비판과 대국민 사과 공개 요청, 착복 사유재산 환수 청원 등을 위한 토론도 진행된다.

지난 1991년 월간 신동아를 연재하며

'하나회'의 존재를 폭로한 김 목사는 허 이사장의 횡령·명의를도용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지난달 30일 광주경찰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최근 노태우의 딸 노소영 이혼소송에서 비자금 재산 실체가 일부 드러났고 신군부 직계 가족들이 여전히 부정 축재 은닉 재산으로 막대한 부를 누리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부당한 권력을 이용한 불법행위로 취득한 재산은 재수사를 통해 철저히 환수해 5·18 희생자·피해자와 유가족의 피해보상에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한국전쟁 시기 신안 민간인 희생 '진실규명'

적대세력 자은면 주민 104명 학살 진화위, 국가 사과·피해회복 권고

한국전쟁 시기 신안에서 발생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이 진실규명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지난 24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87차 위원회에서 '신안군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6)-자은면'을 중심으로-'에 대해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후인 1950년 9-10월까지 신안군 자은면에 거주하던 주민 104명이 공무원과 우익인사, 경제적

으로 부유하다는 이유 등으로 신안군 자은면 남진 앞바다, 백산리 와우마을 일대에서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진화위는 이번에 신청된 사건 80건(80명)에 대한 제적등본, 족보, 학적부, 1기 진실화해위원회 기록, 판결문 등 관련 자료조사와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조사 등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진실규명 신청된 80명과 직권조사 과정에서 희생 사실이 확인된 24명 등 총 104명의 신원과 희생 사실을 확인했다.

진화위 조사에 따르면 1950년 7월 24일 인민군이 목포를 점령했고, 이후 자은

면의 경찰은 부산으로 피난을 떠났다. 자은면의 좌익들은 인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여성동맹 등의 단체를 조직해서 활동했다.

자은면에도 인민군이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나, 관련 기록을 확인되지 않았다. 9월 중순 이후에 좌익들은 마을 주민들을 창고에 구금한 뒤 남진 앞바다로 끌고 가 수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화위는 국가에 복한 정권의 사과 촉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공식 사과, 피해회복과 추모사업 지원 등 후속 조치,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기록 정정, 평화·인권 교육 강화 등을 권고했다. 정상이기자

술자리서 부하직원 상습 성추행한 교직원 항소심서도 실형

'양형부당' 쌍방 항소

학교 행정실장 지위를 악용해 부하 교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A씨(53)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년을 명했다.

전남의 한 중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교내 여직원 3명을 17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학교와 회식 장소 등에서 여직원들의 허벅지, 엉덩이 등 신체를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일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하면서 법정구속을 하진 않았다.

피해 교직원들은 A씨의 공타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했고, 검사와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겪어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이 사건으로 A씨가 해임됐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민현기 기자

뺑소니 사망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 음주 정황 확인

결제 영수증·목격 증언 확보

달리던 오토바이 후미를 추돌하고 사망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운전자가 당시 음주 상태였던 정황이 확인됐다.

광주 서부경찰은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A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3시11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법인 명의 수입차를 몰다가 앞서달리던 B(23)씨의 오토바이의 후미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뒤에 타고있던 20대 여성 오토바이 동승자가 숨졌고, 오토바이를 몰던 B씨가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몰았던 수입차의 동선을

역추적해 음주 정황을 파악하고 나섰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씨가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고 나와 운전대를 잡은 정황을 확인했다.

당시 결제한 주류 영수증과 'A씨가 술을 마신 뒤 운전했다'는 목격 증언 등도 확보했다. A씨가 운전한 차량은 서울의 한 유통업체 법인 명의로 등록된 수입차로, A씨는 추돌 사망 사고 현장 주변에 해당 차량을 두고 달아났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또 정확한 차량 소유·실사용 경위와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여부, 도주 이유 등을 조사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상이기자

환절기 찾아온 광주·전남 10도 이상의 큰 일교차

불볕더위가 끝나고 가을이 찾아온 광주·전남에서 당분간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큰 일교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25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10도 이상의 큰 일교차가 예측됐다.

광주·전남 26일 아침 최저기온은 18~23도, 낮 최고기온은 28~30도로 예보됐다. 27일 아침 최저기온은 17~22도, 낮 최고기온은 26~29도로 발표됐다.

또 26일에는 광주와 전남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5~20mm 수준이다. 27일에도 구름이 낀 흐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찬기자